chudosa.com

여러분,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는 김영숙, 저희에게는 그저 엄마였던 사람을 보내며, 그 삶을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1958년 3월 14일 부산에서 태어나 3남매의 맏이로 자란 엄마는, 일찍부터 “큰딸의 마음”으로 살아오셨습니다. 정직하고 책임을 지며, 한 번 맡은 사람은 끝까지 돌보겠다는 간호의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30여 년을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. 정형외과 병동의 수간호사로, 환자 교육을 꼼꼼히 챙기고,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. 결혼 후 서울로 올라와서는 주말마다 무료 진료소 봉사에 나가셨고, 지역사회 건강검진과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.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그 손길이, 이 도시의 수많은 하루를 지탱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.

엄마는 성실했고,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작은 일에도 “이만하면 참 감사하지”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도 인사를 건네고, 씨앗이 올라오는 날이면 손끝에 남은 흙을 털며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. “봐라, 오늘은 잎이 하나 더 났다.” 그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곤 했습니다. 틈틈이 뜨개질로 아기 모자를 만들며 손주 민준이를 떠올렸고, 무언가를 전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손편지를 쓰셨습니다.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에는 늘 같은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. “괜찮다. 천천히 와도 된다.”

저에게 엄마는,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. 제 마음이 어디쯤 흔들리는지 먼저 알아채고, 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꺼낼 때가 많았습니다. 제 가장 선명한 기억은 겨울 새벽시장입니다.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길, 시장 입구에 서린 하얀 김 사이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. 한 손에는 뜨끈한 어묵 국물을 들고, 다른 손으로는 제 고민을 천천히 헤아려 주셨습니다. “서현아, 길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.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면, 그게 네 길이야.” 그날의 국물 맛과 엄마의 목소리는 지금도 제 마음 한가운데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.

환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한 등불이던 엄마가, 집에서는 포옹 하나로 근심을 녹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. 몸이 아픈 날이면 들깻잎을 듬뿍 넣어 끓여 주시던 된장국이 있었고, 식탁에 그 냄새가 올라오면 우리 집은 금세 안도와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. “괜찮다”는 말은 엄마가 가장 자주, 그러나 가장 조심스럽게 쓰던 위로였습니다. 상처난 자리에 붕대를 감듯, 과장되지 않게 꼭 필요한 만큼만.

chudosa.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

아버지 박진수 옆에서, 아들 민수와 저를 키워내며, 엄마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 식탁을 넘어 이웃과 동료에게까지 넓게 흘렀습니다. 항암 치료로 몸이 지쳐가던 때에도, 병동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“밤 근무 끝나면 라면 말고 따뜻한 밥 먹어. 수분 잊지 말고.” 이 짧은 문장들에 엄마의 직업과 삶, 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, 저희에겐 큰 자랑이자 위로입니다.

엄마는 떠나시기 전 장기기증 서약을 남기셨습니다. 끝까지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.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, 엄마의 손길이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맥박이 되고, 누군가의 숨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. 그 생각만으로도, 우리의 슬픔은 자주 감사로 바뀝니다.

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. 문을 열면 먼저 다가오던 포옹. 피곤한 날 부엌에서 풍겨오던 된장국 냄새. 그리고 너무도 평범한 목소리로 “괜찮다”고 말해 주던 사람. 그러나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건 그리움만이 아닙니다.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태도, 정직과 책임을 삶의 첫머리에 두는 습관, 작고 느린 것들을 기다려 주는 인내. 베란다 화분처럼, 그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.

민수야, 그리고 민준아. 엄마가, 할머니가 너희에게 건넨 그 따뜻함과 단호함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.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는 일, 약속을 지키는 일, 고마움을 말로 먼저 표현하는 일.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다.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. 힘들면 서로 어묵 국물 한 잔씩 들고 앉아서, 천천히,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.

아버지, 긴 세월 곁을 지키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가 사랑한 것은 일과 사람,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. 그 사랑을 아버지와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. 엄마가 늘 그러셨듯, 요란하지 않게, 그러나 흔들림 없이.

엄마, 2024년 9월 28일, 향년 예순여섯. 숫자들은 엄마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. 부산의 바람, 병동의 밤, 시장의 새벽, 베란다의 햇빛, 봉투 속 손편지, 그리고 “괜찮다”는 말. 우리는 그것들로 엄마를 기억하겠습니다. 슬픔과 함께, 감사와 함께.

이제는 안심하고 쉬세요. 엄마가 우리에게 맡기고 간 것들—서로 돌보고, 약속을 지키고,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—우리가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.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부엌에서 들깻잎을 다듬고,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, 손편지에 이름을 적을 겁니다.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엄마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.

괜찮다. 천천히 와도 된다.

엄마,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걱정 마세요.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돌보며, 엄마의 삶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.

이 추도사는 chudosa.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.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.com

chudosa.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